봉황은 아침 햇살에 울고, 선학은 매화 속에 깃들다

사찰벽화 명작순례

① 안동 봉정사 영산암 응진전의 봉황도와 선학도



안동 봉정사 영산암 응진전 동쪽 벽면의 봉황도.


안동 봉정사 영산암 응진전 서쪽 벽면의 선학도.

영산암 사찰벽화는 민화풍의 명작
응진전 단청벽화는 1886년에 조성
창덕궁 대조전 벽화와 같은 조형 원리
봉황도와 선학도의 대위법적인 구도

동쪽 벽면–봉황–아침 태양–청색 중심
서쪽 벽면–선학–저녁 보름달–흰색 중심

사방 면에 툇마루가 있는 고택 닮은 불전

봉정사 영산암은 고택 느낌이 강하다. 가운데 마당을 중심으로 정면에 이층 누각 우화루가 버티고 있고 법당과 요사채들이 ㅁ자 일곽을 이룬다. 이런 건축 형식은 안동, 영주, 봉화, 예천 등의 경북 북부 지역의 고택이나 재사 건축에서 보편 양식으로 나타난다. 중앙에 마당을 두고 사랑채, 안채, 부속 건물 등이 사면을 폐쇄형으로 감싼 형태다. 비바람을 막고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는 데 유용하다. 남녀유별, 장유유서, 그리고 조상의 제사를 받들고 손님을 맞이하는 봉제사 접빈객 등 유교적 사회질서와도 긴밀하다. 건축도 사회관계의 산물로서 시대 철학과 사회 관념을 필연적으로 반영한다. 안동 지역에서 ㅁ자형 건축의 집중과 보편성은 조선 성리학적 유교의식이 특별히 강한 지역 특성과 밀접할 것이다. 독특한 영산암 건축 형식도 유교의식이 특별한 지역 특성 속에 꽃피운 불교 건축으로 이해하면 금방 수긍된다.

영산암 건축에서 또 하나의 인상적인 대목은 ㅁ자형을 이루는 네 방위의 건축들이 저마다 툇마루를 갖추고 있는 장면이다. 툇마루라는 건축 장치는 휴식과 자유로움의 이미지와 겹친다. 격식 있는 의례가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불전 건축에서 툇마루는 뜻밖의 장면이다. 그것은 궁궐 정전 건축에 툇마루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영산암에서 툇마루는 물 흐르듯 수평으로 이어지거나 툽아 흐른다. 어떤 곳에는 하류처럼 넓게, 어떤 곳은 상류처럼 좁게 굽어 돈다. 툇마루의 흐름에는 장단이 있고, 고저가 있어 리듬감이 살아 있다. 높낮이 차이로 흐름이 끊어질 듯한 모서리 부분은 푸르른 소나무가 자라는 바위 뒤로 좁은 계단 길을 내서 공간의 유기적 일체감을 절묘하게 살려 내고 있다. 툇마루는 공간의 푸근함을 엮어 낸다. 누각 마루에 넓게 시설한 대청과 길게 연결돼 있는 툇마루 장치가 연출하는 심리적 위로가 융숭하다. 그래서일까? 영산암은 아늑한 고택에 들어선 느낌을 준다. 종교건축이 갖기 쉬운 권위나 위압감이라곤 찾아보기 어렵다. 공간과 건축이 대단히 인간적이고 소박하다. 주름진 아버지, 어머니의 숨결이 흐르는 고향집 같다. 종교건축에서 36.5도의 사람 체온이 느껴진다.

영산암의 중심 불전은 응진전이다. 응진전은 성자가 된 사람의 아들, 나한들을 모신 공간이다. 인간의 희로애락이 배어난다. 응진전의 장엄에서 종교 교의를 강조한 교조주의 소재가 아닌, 수복강녕을 발원하는 인간적인 소재들의 채택은 어쩌면 당연한 흐름인지도 모른다. 장엄 소재들은 두루 민화풍이다. '까치 호랑이', 방아 찧는 옥토끼, 어변성룡도 등 다채롭다. 종교 장엄에 세속의 바람과 해학을 담은 민화 소재를 폭넓게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벽화 장엄에서 사람의 체취가 묻어난다.

응진전 벽화들은 내외부 포벽 벽화들을 합쳐 40여 점에 이른다. 내부에 30점, 외부에 10여 점이 분포한다. 불교회화와 민화, 도교적 도상들이 뒤섞여 있다.

벽화 제작연도는 동쪽 충량에 남아 있는 묵서로 확인된다. '병술청명(丙戌淸明) 단확(丹雘) 광서십이년(光緖十二年)'의 묵서 기록이 그것이다. 광서 12년은 청나라 연호로서 병술년 1886년에 해당한다. 청명절은 4월 5일경, 오늘날로 치면 식목일이다. '단확'은 '단청'과 같은 의미의 용어다. 즉, 1886년 양력 4월에 벽화 등을 그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응진전 벽화가 140년 된 성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동쪽 벽에 봉황도, 서쪽벽에 선학도

응진전에서 가장 뛰어난 벽화는 동서 벽면을 장식한 봉황도와 선학도다. 내용과 형식, 색채, 구도 등에서 탁월한 사찰벽화의 한 면모를 보여 준다. 붓질이 대단히 정교하고 매끄럽다. 그림 대상에 대한 안목과 이해, 통찰을 통해 대상의 본질을 완전히 간파한 후 형상화한 '격물치지(格物致知)', 또는 '응물상형(應物象形)'의 실증적 태도가 벽화에서 묻어난다.

벽화는 목적의식적이고 계획적인 설계 속에 배치됐다. 시간, 방위, 색채 운용을 동양철학의 정수라고 부르는 오행체계에 맞췄다. 예술의 철학화, 철학의 예술화가 이뤄졌다.

벽화 속에 좌청룡 우백호의 방위 질서 규범이 드러난다.

동쪽에 봉황, 서쪽에 선학을 배치하는 구도는 문법의 규범성처럼 일종의 조형 원리로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봉정사 서북쪽으로 400m 쯤 떨어져 있는 지조암 칠성전에서도 동일한 구도가 나타난다. 칠성전 벽화는 응진전 벽화를 조성한 1886년의 4년 후인 1890년에 그렸는데 화풍을 보면 동일한 화원이 그렸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특히 응진전과 칠성전의 두 봉황은 일란성 쌍둥이처럼 그 봉황이 그 봉황으로 판박이다. 이렇게 색채를 통한 시간 공간을 해석하고 배치하는 고유한 단청 장엄 원리는 비교적 법식이 엄격히 지켜진 궁중벽화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1920년에 제작한 창덕궁 대조전 벽화(비단 바탕에 그린 견본채색)가 그런 사례다.

대조전 동쪽 벽면은 오일영, 이용우가 그린 5.7m에 이르는 긴 봉황도로 장식했다. 봉황도 소재도 영산암 벽화와 같다. 봉황, 오동나무와 대나무, 청색 바위, 아침의 붉은 태양 등 소재와 모티프가 동일하다. 봉황도엔 왜 오동나무와 대나무가 등장하는가? 〈장자〉 외편 제17의 6장에 그 대목이 나온다. "봉황은 오동나무가 아니면 머물지 않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도 않으며 물맛이 단 예천 샘물이 아니면 마시지 않는다." 봉황도 속 오동나무와 대나무는 봉황의 습성을 조형으로 대변한다.

그에 짝하는 대조전 서쪽 벽면은 '왕의 어진을 그린 최후의 화원'으로 불린 김은호가 그린 5.7m 대작 송학도를 영산암 응진전과 같은 원리로 배치했다. 이 역시 소재가 같다. 정수리가 붉은 선학, 흰색의 보름달, 노송, 불로초 등으로 한결같다. 궁중벽화에서도 동-봉황, 서-선학을 배치하는 규범이 똑같이 나타난다.

응진전 벽화에서 봉황도와 선학도는 대위법적인 양상을 보인다. 다른 두 개의 화성으로 조화로운 음악을 만들 듯이 다른 분위기의 두 화면으로 길상과 태평천하의 이상향을 추구한다. 봉황도가 남성적이고 힘차다면 선학도는 여성적이고 부드럽다. 봉황도가 냉철하고 단순하다면 선학도는 따스하고 화려하다. 오동나무가 수직적이고 직선적이라면 매화나무는 수평적이고 곡선적이다. 봉황의 눈이 직선으로 예리하다면 선학의 눈은 둥글고 부드럽다. 조형 속에 강약강약의 리듬이 조화롭다.

봉명조양의 봉황 출현은 태평성세 예고

봉황도에는 붉은색 화제(畫題)가 적혀 있다. 화제는 '봉명조양(鳳鳴朝陽)'의 사자성어다. 직역하면 아침 햇살에 봉황이 운다는 뜻이다. 고사에서 봉황은 왕에게 거침없이 바른말 하는 충신의 상징이다. 조정에 충신의 직언이 우렁차니 나라가 태평할 수밖에 없다. 봉황의 출현은 곧 태평성세와 국태민안의 징조와 다름없다.

청색 바위 위에 늠름하게 서 있는 저 봉황을 보라. 수직으로 곧추세운 몸에는 힘이 충만하고 예리한 눈빛에는 불굴의 의지가 읽힌다. 살아 있는 생명의 진정한 본성은 눈빛의 묘사 속에 숨김없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선연한 기운이 흐르는 봉황의 눈빛이 길상의 원천이다. 갈색의 사자 갈기 같은 목의 깃털은 바람에 부풀려 있다. 대여섯 가지 다채로운 색으로 층층이 풀어낸 날개는 유체역학을 터득한 정밀한 비행 능력을 짐작하게 한다. 허공에 뻗친 꼬리는 벌써 바람을 가늠하고 있다. 두 봉황은 서로 눈빛으로 교감을 나누고 있다. 봉황이 출현하였으니 곧 천하가 길할 것이다.

선학과 매화, 보름달은 수복강녕의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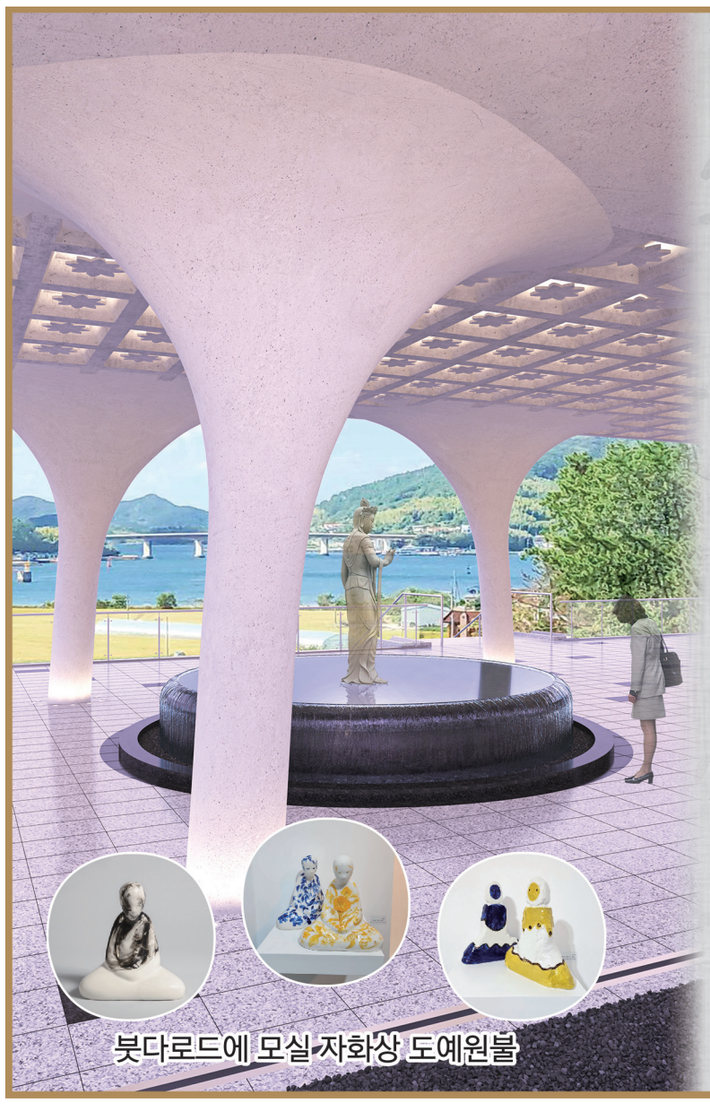
눈길을 돌려 선학도를 보면 마음에 봄기운 가득한 보름달 빛이 번진다. 고매의 등걸 위로 강물이 흐르는 듯 붓질이 일필휘지로 유려히 흐른다. 고매의 등걸에 흐르는 나뭇결이 전류가 흐르는 구리선 같다. 뼈대에 흐르는 기운생동의 생명력이 읽힌다. 늙은 고매이지만 기품 있고, 기세도 왕성하다. 비뚤어지고 바싹 메마른 듯한 검고 늙은 등걸에 청정한 흰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교교한 보름달 빛에 소금을 흩뿌린 형세다. 몸은 늙었어도 꽃을 무성하게 피워 내고 있다. 쇠처럼 단단한 몸에서도 꽃이 핀다. 철골생춘의 경지다.

십장생의 두 선학도 고매처럼 천년을 살았다. 매화는 추위에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고, 오동나무는 천년을 살아도 제 곡조를 간직하며, 달은 천 번을 이지러져도 본 형세는 변함이 없다. 선학과 매화와 보름달이 시간의 경계를 초월하고 있다. 조형에 만수무강의 뜻이 환하다.

양록색 넝쿨은 매화나무 등걸을 칭칭 감아오르며 붉은 꽃망울들을 능수버들처럼 아래로 축축 늘어트렸다. 성글게 드리운 붉은 넝쿨꽃 장막 효과로 신비하고도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극대화한다. 땅엔 마침 불로초가 한껏 부풀어 올랐다. 선학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불로초 한 움큼을 움켜쥐었다. 십장생이 십장생을 취하여 장수의 염원을 농도 진하게 살려낸다. 모든 것이 무르익은 절정의 시간이다. 바야흐로 수복강녕과 태평성세의 시간이 도래했다.



노재학 작가



거북이가 알을 낳고 봉황이 내려앉는 명당

자손대대로 공덕이 이어지는 창건불사에 동참하십시오

거북이 같은 장수와 부귀영화를 누리고
천상에 태어나는 큰 공덕이 됩니다.

한려수도의 심장 거제도 제석산이 감싸고 천연와불이 수호하는
대붕안착형·영구은란형 터로 세계적인 불교 성지가 될 것입니다.

동참방법

원불 108만원, 관음보살상1080만원으로 불자님의 원력과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분할 또는 일시금으로 납입 하시면 됩니다. (원불:삼천불, 관음보살상:33불)
계좌 : 부산은행 101-2083-6727-07 문의 : 010-5514-1002 오오! 일사천리

불사개요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이사장 겸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영산대학교 겸임교수)인 평천 범혜스님이 세계적인 불교 성지 탄생을 위해 여러 불자님의 원력을 모아 창건하는 신개념 사찰입니다.
세계적 건축 명장의 초현대적 감성과 불교 사상·우주관을 융합하여 남섬부주에서 9산8해의 중심 수미산 정상에서 설법하는 부처님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또한, 33수행계단을 오르며 번뇌 망상을 비우고 또 비워서 비로소 참나를 찾아 도자기 원불에 자신만의 자화상이나 원력을 그려 넣어 도예작품으로 완성하여 붓다로드에 모십니다.
부처님의 상징인 흰코끼리 건축물, 수미산 형상의 코끼리 코기둥, 제석천 위 허공에 모신 실물 불상, 바다 위 허공에 모신 실물 33관음보살상, 종이 소재의 법당기둥, 구품연지, 금강저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찰건축 작품입니다.

더뷰비전센터 평천 범혜 합장
(경남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525-3)



부처님은
누구든지 정법이 머무는 도량을 세우고 공양하면 그 공덕은 인간세계에서나
하늘 세계에서 널리 빛나며 끊이지 않고 세세생생 영속해서 번뇌와 업을 소멸
하는 힘이 있기에 자자손손 부귀공명을 누리고 천상에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건 불사는 부처님 법이 오래도록 전해지고 많은 이들이 깨달음을
얻는 수행 터전을 마련하는 숭고한 의미를 지닌 선근공덕입니다.